



5면

시민 제감 '전주의 대변력' 구현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음 12월 20일) 제343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9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 임실, 순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행복 꿈꾼다

전북자치도 찾아가는 도민설명회 - 남원·순창·임실

바이오융합 진흥·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설립  
최경식 남원시장 등 지자체장들, 특례 활용 발전전략 제시

김관영 도지사가 29일 춘향문화예술 회관에서 남원, 임실, 순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가졌다.  
남원시립국악단과 남원시립농악단의 축하공연으로 하나의 축제가 연상될 정도로 참석한 주민들의 호응속에서 시작한 보고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답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신정기 순창군의회 의장,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박정규 도의원, 오은미 도의원, 각 시군의회의 시의원, 군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7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김 지사는 농생명, 문화관

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남원, 임실, 순창에 맞는 바이오융합산업의 진흥, 산림문화·휴양·복지특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김 지사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어 최경식 남원시장은 특례를 활용해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신중년 이주 정착·치유힐링 복합단지, 합파우 아트밸리 조성, 남원일 반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등에 남원만의 특별한 기회로 삼아 새 물결 피어내는 남원을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저지중 도임을 통한 임실치즈산업 경쟁력 제고, 반려동물산업 거점 육성, 육종호 권역 명품생태관광지 조성 등 특별한 기회를 통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장류특구내 산업 확장, 경전·양지천 수변 종합개발, 섬진강변 수상레저 스포츠 육성,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 개발, 회문산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는 30일 익산·군산, 2월 2일 정읍·고창, 5일 장수·진안·무주 등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 신규 교육생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소견,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사 후 3월 중 개별 통지한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고,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 각론 등 3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주 2회(화, 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례·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시연 강의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주 2회(화, 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 에너지 민생안정 563억 투입

전북자치도,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급망 확대 추진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점검·LED 조명등 교체 등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보급망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5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보급망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 223억원, LPG배관망 설치에 107억원을 투입해 연료비 부담경감과 도심지역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개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51.6km가 연장됨으로써 1,500여 세대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해 약 2,200세대의 에너지 보급 확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가스타이어 안전장치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일러 점검과 노후 부품교체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홀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1,7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효율 LED 조명 등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1,414가구, 사회복지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가스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4,090가구에 대해 가스타이어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에너지바우처,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사용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도 에너지공급망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시책을 발굴해 에너지 민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국토부,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올해 설 물량 8% 증가 예상  
임시인력 5300여명 추가 투입  
지자체 등, 필요물품 사전 주문  
배송 원활·종사자 과로 방지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1,730만 박스로 평시 1,600만 박스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아울러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회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영업장별 건강관리지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해 소비자 편의 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에 나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 내 고향 장수 살리는

# 고향사랑기부제

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 기부금으로 전하세요!

장수사랑상품권

장수 한우

모바일지 세트

장수 사과

오미자

오미자루

등 20여개 품목

문의 | 장수군 행정지원과 ☎ 063-350-2009, 2140

#### 고향사랑 기부제란?

재원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물 등 담배를 제공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http://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포함)

**기부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담배를 3만원

**세면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세면2**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담배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